

名前:

요즘 인터넷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 
 있다고 합니다. 날씨 정보에서부터 유희  
 성의 이성간 만남까지 가능하게끔 되었  
 습니다. 그 중에는 뉴스나 잡지도 포  
 함되어 있습니다. 편리하여서 자주 인터  
 넷을 이용하여 읽는 사람이 많아졌지만, 신문  
 이나 잡지를 읽는다고 하면 반대입니다.  
 물론, 사지 않고서도 읽을 수 있다.  
 (그런데 신문, 잡지 등 읽을 지도  
 모릅니다) 종이의 사용량을 줄일 수  
 있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장점을 꼽을  
 겁니다. 그렇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온,  
 있어 온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어떤  
 까요. 신문이나 잡지부터 시작해서,  
 소설 등도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게  
 되어 그 정도 이제 인쇄하지 않아도 된  
 다고 여겨지게 되면, 우리들의 방은  
 쓸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 
 또 하나, 단점을 말하자면, '몸이  
 지친다는 것입니다. 인터넷을 하기 위

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고, 모니  
 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.  
 신문 등을 읽을 때에는 왜 시간이 걸  
 리므로 눈도 머리도 지칩니다. 컴퓨터  
 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 사람 중에 허  
 리나 어깨가 나빠진 사람도 있다고 합  
 니다.  
 저는 손에 만져지는 종이의 가벼움을  
 좋아하기 때문에, 신문이나 소설 등은  
 그다지 인터넷으로 읽지 않습니다. 저  
 타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  
 다. 책을(어떤 책이든지 간에) 살  
 때마다 마음이 기쁘므로 가족에게는 사  
 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마  
 날로그의 매력이 있으면으로 하루를 즐겁  
 게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.  
 이것 제 작은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
 만, 도서관의 사람들, 지하철에서 신  
 문 등을 읽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배앗  
 지 않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
1800字